

매티스, 오늘 시진핑 만나 대북 압박 요구

(미 국방장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완화 안된다 중 내세워 대북협상 끌어낼듯

지난 26일 방중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 측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고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웨이펑허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 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양측의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4일 방중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찬가지로 오는 28일 출국에 앞서 시진핑 주석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미중 국방장관 회의에서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인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있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서 만나 밀착을 과시하는 등 최근 석달 사이 3차례나 정상회담을 한 바 있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티스 장관은 방중에 앞서 경유지인 알래스카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심각히 여긴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수일에서 수주간 진전을 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을 재차 압박한 바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왼쪽 두번째)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북한의) 그 역량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명백히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 국방부가 27일 전했다. 이날 매티스 장관이 베이징에서 웨이펑허(오른쪽 두번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또한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등 중국이 요구하는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받아들인 상황이라 비핵화 협상에 중국이 주요 당사국으로 참여한다는 전제 아래 협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최근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쌍중단 구상을 제안했는데 효율적인 처방"이라며 "우리는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비핵화 방향

으로 나아가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소식통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비핵화 구도에서 중국이 북한을 끌어당김으로써 판이 복잡해졌다"면서 "이번 매티스 장관의 방중은 북한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 비핵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미국은 그동안 강력한 대북 압박이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여기고 있어,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매티스 장관이 중국에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세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지원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황이라 인도적 지원과 정상적인 교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미국의 공세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美 법원 "이슬람권 입국 금지 정당" 판결 트럼프 "와우! 미국 국민과 헌법의 승리"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 위헌 소송 최종심에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하며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확연히 갈리면서 보수-진보 진영 간 노골적인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와이 주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1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3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차드와 제외되면서 입국 제한국은 7개국이었다. 하와이 주는 이중 이슬람권 5개국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소송을 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결정은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

에 따라 정확하게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클라렌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보수 성향 5명이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었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4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5대4로 보수 우위 구도가 됐다.

로버츠 대법원은 다수 의견을 반영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 계정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행정명령)를 인정했다. 와우(Wow)!"라고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일 후인 지난해 1월 27일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반이민 정책 시행에 나섰다. 각각 법원에서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으나 그는 2차, 3차 행정명령 등으로 수정을 거듭하며 물러가지 않았다. /연합뉴스

브라질, 미국 밀입국 어린이 귀국 추진

미세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에 밀입국한 부모와 격리된 자국 어린이 50여 명을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메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이런 뜻을 밝히고 미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를 억류하고 기소할 것이라는 "무관용(zero tolerance)" 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에는 현재 51명의 브라질 어린이가 격리 수용된 상태.

오찬에 참석한 세르지우 아미라우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는 "테메르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에게 브라질 어린이들을 데려오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브라질 외교부 관계자는 부모와 격리된 어린이 50여 명의 보호와 치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펜스(오른쪽) 부통령과 테메르 대통령

이날 오전 브라질리아에 도착한 펜스 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테메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외교부 청사서 이듬해 오찬을 함께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베네수엘라 난민 사태에 우려를 표시하고 공동 대응 의사를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자국의 위기를 피해 대규모 국경을 넘는 베네수엘라인들을 수용하는 브라질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호텔들 폭탄 위협 대피 소동

러시아가 월드컵을 치르는 도시 가운데 한 곳인 남부 로스토프나도누의 여러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 전화가 걸려와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러시아 현지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저녁 정체불명의 한 남성이 경찰 신고 전화로 로스토프나도누의 11개 호텔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로스토프나도누에 인접한 도시 약사이에서도 유사한 전화가 걸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대테러 전문요원들을 출동시켜 투숙객들을 대피

시키고 폭발물 탐지에 나섰다 어느 곳에서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로스토프나도누의 16개 시설물에서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한 목격자는 통신에 현지 경찰이 폭탄 위협 때문에 로스토프나도누의 '토포스 콩그레스 호텔(Topos Congress-Hotel)'에서 사람들을 대피시켰으며, 탐지견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모든 시설물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리스 주한 미대사 인준 상원 외교위 통과

다음달 초 마무리 될듯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2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리스 지명자는 큰 무리 없이 의회 인준의 벽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위원장 밥 코커)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리스 지명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혀 있지 않은 가운데 늦어도 7월 초에는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 4성 장군 출신으로, 대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해리스 지명자는 지난달 18일



주한 미대사에 공식 지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리스 지명자를 주호주 미국대사로 지명했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바꿔 주한대사로 지명했다.

해리스 지명자는 지난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 협상을 일시중단(pause)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상가 원룸 매매 [신축 전문]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주택) ★공실원 앞 전망최고★

보 9천 월 600만 (용3억)
▶매가 9억4천만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② 월곡동 (1층 상가1칸) 2층~4층(원룸12개) (투룸3개) (합16개) 월세 590만 ▶ 매가 8억 7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3천만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 3억5천만 가능)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시세 1억3천
매가 6천300만

①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 (12층중 6층) 23평 (보5백 월33만) ▶ 매가 7천5백만
 ② 북구 용봉동(상가빌딩) 상대분 (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 안집있음) 보 1억6천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승탄역 1분.(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가 9억
 ④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승탄역, 진위역 5분 (교육신도시 7분!!)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⑤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상정동) 코너 총 16개 (상가1개) ▶ 매가가 3억5천만

010-7384-7800

법률 경매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 전문) ★6월 개강 선착순 모집★

상가빌딩(추천)
 1) 서구 쌍촌동 (3층 상가주택) 유동단지 인구 고지료 코너 6차로대로 접 ▶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2) 광산구 소촌동 (원룸빌딩) 토 80평 건 144평 ▶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2억4천8백
 3) 남구 백운동 (3층 빌라) 토 65평 건 145평 (코너 위치) ▶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2억2천
 4) 북구 문흥동 (빌라) 토 57평 건 101평 ▶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2억

토지 기타 추천
 1) 서구 매월동 348평 유동단지 인구 고지료 코너 6차로대로 접 ▶ 시세 18억 → 최저가 6억6천
 2) 동구 지산동 (토지) 176평 ▶ 감정가 1억7백 → 최저가 1억7백
 3) 남구 월산동 (100평) ▶ 감정가 1억 2천 → 최저가 7천9백
 4)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137평) ▶ 감정가 13억→최저가 9억9천
 5) 수원지구 (1층상가) 50평 ▶ 감정가 9억3천→ 최저가 5억2천
 6)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100평 ▶ 감정가 6억7천→ 최저가2억4천

★ 일반 부동산토지매매 ★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 상정동) 코너 총 16개(상가 1개) ▶ 매가가 3억5천만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주택 공장/기타

① 수원지구 (5층중 2층상가)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② 북구 용봉동 (2층 중 7층 상가) 감정가 8억7천 → 최저가 2억9천5백
 ③ 동구 남동 (상가주택)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④ 남구 문흥동 (4층 중 3층 상가) 감정가 18억 → 최저가 12억8천
 ⑤ 남구 주월동(미트) 토 108평 건 88평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0억

① 서구 비둘기울주공 아파트 (2층)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1억4천
 ② 서구 용문동 중흥아파트(24평) 시세 1억9천 → 최저가 1억4천
 ③ 남구 지동동 현대아파트 (40평)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1억4천
 ④ 북구 신원동 연방수자인 (2층) 감정 3억2천5백 → 최저 2억2천5백
 ⑤ 서구 치령동 마추아파트 (22평) 시세 1억 2천 → 감정가 1억

① 북구 일곡동 청솔아파트 (19평) 시세 1억 → 최저가 7천5백
 ② 광산구 신장동 부영아파트(34평) 시세2억 1천 → 최저가 1억4천
 ③ 광산구 오산동 공평도 500평 건 500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7억 9천
 ④ 광산구 월산동 공평도 2000평 건 2000평 감정가 88억 → 최저가 4억
 ⑤ 서구 양동 (숙박시설) 68평 건 427평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1억9천

010-7384-7800 010-6670-9800